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2. 1호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김수옥 수산나 수녀 | 수도생활 50년 나눔



금경축 미사
서원문 낭독

Q. 처음 우리 수녀원을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나요?

서울에서 성당에 열심히 다니며 살았는데서, 주변 분들 중 우리 수도회를 잘 아는 가족이 우리 수녀원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수녀원에 가면 너무 좋고, 수녀님들이 천사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한번 놀러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갔다가 시간이 깊어지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 수녀원에 입회한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구교집안에서 살면서 신앙이 무엇보다 삶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 반대하시지는 않고 멀리 엄한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을 좀 서운해 하셨습니다.

우리 수도회는 반 관상처럼 조금 엄격했고 침묵 속에서 일사분란하게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모든 것을 다 기도 화 하는 삶을 살았지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무슨 작업을 할 때에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나도 모르게 거룩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녀원에 와서 이 삶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 시작
(위)오른쪽
세번째

Q.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모든 것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짜여진 삶 안에서 사는 것이 긴장 되었고, 잘못하면 야단도 맞았습니다. 시간에 조금 늦었다 하면 식당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던지... 이런 걸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나를 긴장되게 만들었어요.

Q. 종신서원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종신 서원을 하고 나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았고, 마음속에서는 어디든지 갈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1980년 12월 8일 종신서원을 한 다음날 최초로 공소(화암 공소) 사도직을 시작했어요. 종신 서원을 한 다음 날, 엄동설한에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준비도 없이 떠나게 되었고, 어딘지는 가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지금과 정말 사뭇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정말 열악했지만 그것이 불편해도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Q.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과 수도 생활의 모토는 무엇이었나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 복음의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 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 말씀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수도 생활의 모토는 매사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작든, 크든, 끝까지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최선을 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Q. 언제 선교를 떠나셨나요?



스위스 관구

제가 종신서원을 하고 태백 장성 성당에서 3년이 되던 때, 관구 경리 수녀님이 관구장님이 되시면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제가 관구던 경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구 경리 사도직을 9년 마친 후, 본회의 언어도 배우고, 쇠신도 하기 위해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어를 배웠고, 스위스에서 성경 공부 2년 코스가 끝날 무렵에 스위스 관구장님이 관구 경리를 할 수 있는지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선교를 떠나 11년 동안 살았습니다. 2007년, 최초로 프랑스와 스위스 두 관구가 한 관구로 합해졌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많이 남은 것은, 수녀님들의 선교 열정입니다. 겨울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계셨지만, 날만 따뜻해지면 매일 길 위에서 1년에 샌달이 하나씩 닳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선교사로 사시는 모습이 제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Q. 금경축을 맞이하시는 감회가 어떠신지요?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해서 놀랐고,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이 저를 부르셨고, 제 봉헌을 제가 했다가보다 약속을 하느님께서서는 받아주셨습니다. 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정 안에서 언제나 다시 일어나고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보잘 것 없고 허물투성이라도 하느님께서서는 개의치 않고, 늘 함께 계시고, 제 여정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우리 수도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FMM 이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떤 조건 없이 저를 형제로, 자매로 맞아 주는 것이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도회에 감사하고, 수도회를 통해서 제가 수도생활을 배웠고 또 이 수도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간은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거 그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은 외상입니다.

빈창숙 엘리사벳 | (영적가족 4기)

21년11월초였다.

집에서 거실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들고 글을 쓰다가 휴대폰이 기름 발라 놓은 것처럼 미끄러져 손에서 떨어졌다. 찰나의 순간에도 "액정이 깨지겠다!" 라는 생각에 발등으로라도 충격을 흡수하려고 왼발을 내민 순간 미끄러져 뒤로 파당 하고 넘어졌다.('발라당'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었다.) 한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바닥과 함께 떨어지지 말라고 본드로 붙여 놓은 것 같았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뿐이었다. 넘어지는 순간 엉덩이에선 절구방망이로 내려 친 것처럼 '쿵' 소리가 났고, 왼손 팔목은 뒤로 젖혀 질대로 젖혀지며 '짱' 소리가 났으며, 놀란 머리에선 "아고!" 소리를 입으로 뱉어냈다. 색깔로 표현하자면 엉덩이의 아픈 색깔은 '바짝 말린 매운 청양고추의 빨간색'이었고, 손목의 아픈 색깔은 빙하가 녹아 내려오는 청아한 '옥색 에메랄드 색'이었고, 놀란 머리의 색은 세찬 비 뿌리는 '짙은 진회색의 구름 색'이었다.

"아고야!!! 일 났네. 일 났어! 아!"

생전 처음으로 깁스를 했다. 이런 건 정말 안 해봐도 되는데... 남 배 가르고 수술한 것 보다, 내 손끝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고 했나? 왼손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른 손만으로는 칼질은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옷 입고 벗는 것도 어려웠고 한 손만으로는 사고의 위험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성당을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나는 버스 2번 갈아타고 성당 가는 게 번거로워 걸어가기로 했다. 성당까지는 편도 3.3km이니 미사 시간 1시간10분 전에 출발해서 묵주기도를 드리며 걸었다.

걸으며 '예수님 수난기도'를 드리며 걷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보다 내 손목 꺾스한 팔과 어깨와 성당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서는 '감사의 기도'도 읽은 채 "아고! 힘들어!" 소리만 연발해 대며 큰 대자로 누워 버렸다.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힘들었다.

주일엔 미사가방이 아니라 어깨에 메는 가방에다 무겁지 않게 미사포와 기도문등을 넣고 걸어서 성당으로 갔다. 가방이 가벼우니 걷는 발걸음도 가벼웠고 묵주기도를 드리며 오늘만 같으면 걸어서 성당에 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지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물 봉헌 시간이 되었다. 가방을 열기도 전에 기도서에 주일헌금을 넣어두고 마지막에 기도서도 무겁다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온 것이 생각났다. 예물봉헌 시간은 다가오고 난감했다. 중앙통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나는 목을 기린처럼 쪽 빼고 두리번거렸다. 혹시 아는 얼굴 있나 해서(그렇다고 빌릴 것도 아닌데.) 옆 사람을 위해 일어서서 자리를 비켜주고는 "주님! 오늘은 외상입니다."라고 말했다.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왠지 슬프고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했다. 미사봉헌이 끝나고 나는 제대 앞으로 가서 감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저는 작은 기도서마저도 무겁다고 놓고 온 저를 용서하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메고 온 가방은 가벼웠지만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여러 가지들로 나를 되돌아보았다. 나는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무엇을 달라고 청하기만 하는 존재였지 않나?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기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분처럼 생각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싫어요."하고 말이다. 내가 곤란을 당하고 위로받고 싶은 땀 얼른 주님을 찾으면서 그분께서 나를 찾으실 땀 "아, 지금 바쁘거든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라고 핑계를 대지는 않았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편할 때만 사랑했다. 특히 곤란과 모욕과 고통은 내게서 멀리 있어야하는 존재였다. 십자가의 고통은 내게서 멀리 있기를 바랐다. 2년 정도만 사용하면 바꾸어야 하는 핸드폰을 위해서는 액정이 깨질까 몸을 날려 받았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선 책 1권의 무게도...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2022년 새해에 후원회원 모든 분들께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민수기6,24-26)

수녀원 소식



2022년 1월 22일, 서울 관구관에서 구요비 읍 주교님의 주례
로 김승현 미카엘라, 정미영 세실리아 수녀의 종신 서원식이
있었습니다.

김승현 미카엘라 수녀는 한구 관구로, 정미영 세실리아 수녀
는 호주 관구의 복음화에 봉사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성소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눔입니다.

가리봉 수녀원 밭에서 수확한 수세미씨앗을 봉투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수세미 심는 시기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연구 하셔서
예쁜 꽃과 열매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지구 살리기에
함께 초대합니다.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기록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후원회 담당자 카톡
010-2821-8174 으로 보내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희망을 지피는 나눔 후원회)

“희망을 지피는 나눔”은

FMM(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사도직과 선교양성을 돕는 후원회입니다.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 정보처리 규정을 준수하며, 희망을 지피는 나눔 후원회원들 관리 및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및 권익보호 등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이메일.

성명/세례명 :

생년월일(축일) :

주 소(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연락처(휴대전화) :

이메일 :

*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하실 분만 표시해주십시오.

▣ 수집 및 이용목적

후원자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정보제공

후원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회원 회지, 간행물 및 지로용지 발송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성프란치스코수녀회 이사장 귀하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1일 ~ 2022년 1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모틀초경	강대현	강승완	강연호	강영혜	강지우(왕효준)		
검단동 성당	검암빈첸시오	고대완	고월순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창용	
공해용	구영희	구유희	구유희	권순익	권영오	권용훈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희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	미리암	김귀선	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현	루가	김두환	(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성용	김성원	김수경	김순철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	스테파노	김영덕	프란치스코	김영순	김영옥	김영운 김영준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수	(농협)	김용식	김용자	(운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회	김재식	김재욱	김정매	(박치현)	김정숙 마리아
김정연	홍수봉	김정웅	(김명신)	김정임	엘리사벳	김정주	김정택	어울회 김정화
김정혜	(정구충)	김종연	김주영	김주옥	김주희	(신경란)	김준희	김지영 김지혜
김진숙	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욱	김춘자	루갈다	김춘자	안나	김해자 김현희
김현숙	(최지명)	김혜겸	김혜영	김호성	(박정식)	김홍양	김화자	김효수 김희재
나숙희	남보라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	(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정애
당효준	명영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민행숙	박규성	(정현정)	박금난 박노성
박병주	박성근	박성준	도미니꼬	박성창	박성현	박소진	박순옥	박승민 박연애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일영	박재용	박정미	박정선 박정연
박정순	(임현서)	박진범	박찬순	박태분	박해필	박현희	박효정	박희순 방진
방상만	사도요한	배수정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서혜석	성영주	소재록	손순덕	손영자	손윤희 손은영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	(명순)	송승운	(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창훈 (이선경)
송채영	송혜경	신동규	신승일	신유라	신재진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안미령
씨디콤	코리아(주)	양공연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세운	오숙자 오승훈
오영희	오옥형	(최민귀)	오인근	오정자	우복명	우영희	운남빈	첸시오 원세경
월ENG	(김진식)	유경혜	유미경	유병춘	유수민	유시연	유은분	유주영 (이성혜)
유춘성	유희숙	육동배	윤경숙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문선미)	윤미숙 데보라
윤미숙	파우스티나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양정희)	윤순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경석	이관훈	이광진	(홍기원)	이광희	이귀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덕호	이동세	이동현	이명순	(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병철
이복순	이상문	이성엽	이성호	(조봉례)	이연실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영혜
이용길	이윤신	이윤옥	이은수	이은주	이인권	조혜리	이인동	이인숙 로사
이임수	(송재용)	이정란	(최윤)	이정숙	데레사	이정숙	마리아	이정숙 수산나
이정하	이종옥	이준우	이지아	이지인	프란체스카	이창석	이창수	이태금 이필단
이향남	이해일	이현순	이홍식	이화경	인용석	임승욱	임윤섭	임정태 임주리
임지원	임진수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순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전선화	전순자	전영관	전제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희	정민정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연화 정영숙
정옥희	정인순	정재영	정재훈	(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향숙	젼마 정혜경
조건희	(최휘선)	조국제	조금자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석금	조성자 조용자
조옥희	조일수	조정희	조중혁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지정희 진교성당
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미양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영숙	최영애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정선	(윤각의)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추상식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인숙	한진경	한효정 (권오현)
허순자	허정자	현경미	홍득식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성란	홍세아 홍승희
홍은숙	황경희	황인복	황정숙					